

<2018년 5월 2일 수요말씀>

생명의 역사

본 문 고린도전서 14장 40절, 고린도전서 14장 33절
마태복음 11장 29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, 성자의 평강과,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,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<생명의 역사>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<살아 있는 생명체>는 모두 움직입니다.
<사람>도 마찬가지입니다.

<살아 있는 생명체>는
모두 움직이고, 활동하고, 뛰고, 달리고, 혹은 날기도 합니다.

- ◆ 그러나 아무리 <살아 있는 생명체>라도
활동을 안 하면, ‘가진 기능’을 상실하게 됩니다.

<사람>도 그러하고, <각종 생명을 가진 존재물들>도 그러합니다.

- ◆ <사람>이 그 존재만큼 몸의 기능을 안 하면,

어깨도 굳고, 목도 굳고, 허리도 굳고, 다리와 손발이 굳어 버립니다.

고로 꼭 매일 ‘기본 기능’ 과 ‘기본 활동’ 을 해야 됩니다.

안 하면, 병들어 고통을 심하게 겪습니다.

그래서 <운동을 안 한 사람들>은

목이 굳고, 몸이 굳고, 후에는 ‘굳은 돌조각’ 같이 됩니다.

그러면 신경 활동을 제대로 못 하니 아프고, 팔다리가 쭉십니다.

◆ 이와 같이 <신앙생활>을 하는 데 있어서도

각 분야에서 각각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기능을 못 하면,

굳어 버립니다.

<마음>도 굳고, <생각>도 굳고, <몸>도 굳고, <뇌>도 굳어 버립니다.

그러면 <굳어진 마음>과 <생각>과 <몸>과 <뇌>를

행동해서 풀 때까지 아픕니다.

◆ <운동>을 하다가 안 하면,

몸이 약해지고 굳어서 쥐가 나고, 근육통이 일어납니다.

<신앙생활을 할 때>도 그러합니다.

<할 일을 안 하고, 뛰고 달리며 날지 않는 자들>은

몸이 굳어서 그렇게도 몸이 아프고,

또 조금만 움직여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.

◆ 선생도 계속 운동을 하다가,

6개월 동안 노래 작사, 작곡에 신경을 쓰다 보니 운동을 못 했습니다.

지금까지 8개월 정도 운동을 못 했더니

삭신도 쭈시고, 목도 굳고, 다리도 굳고, 허리도 굳고, 손발이 굳어서 움직이기만 하면 아픕니다.

그래서 요즘에 다시 운동을 하고, 일을 하니, 이제 좋아졌습니다.

◆ <신앙의 운동>을 꼭 해야 됩니다.

<기도할 때>는 기도하고,

<찬양할 때>는 찬양하고,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.

지금은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고,

뛰고 달리며 날아야 될 때입니다!

이것을 이미 성령님께서 가사를 주셔서 노래로 썼습니다.

◆ <부활의 때를 맞은 자들>이기 때문에
가만히 있으면 또 사망권의 덮침을 받게 됩니다.

◆ <시대>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행해서 되지만,
<개인들>이 행하지 않으면 ‘개인의 입장’에서 맴돌게 됩니다.

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사랑하며

같이 뛰고, 같이 먹고, 같이 즐기는 삼위의 신부들이 돼야 합니다.

◆ 지금은 <부활된 자들의 기쁨과 영광>을 미련 없이 드리며
감격하고 감사하며 고마워하고
삼위일체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때입니다!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월명동에서 일하는 것>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
<하나님의 궁, 하나님의 성전>을 청소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.
자기 삶의 터전에서 부지런히 뛰고 달리며 일을 해야 됩니다.

- ◆ 그리고 모든 사연들을 배워야 됩니다.

1999년도 이후에 전도된 자들은 거의 모릅니다.
주께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

고로 지금 이때

- 계속 <주가 전하는 말씀>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!
-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!

* 잠시 쉰다.

- ◆ 늘 질서 정연하게 해야 됩니다.

주가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‘**질서가 깨지는 것**’입니다.
<질서>가 깨지면 안 됩니다.

- ◆ 바로 줄을 서면 질서대로 잘 가게 됩니다.

<질서>는 ‘**반드시 순서대로 행하는 것**’입니다.
‘**성약의 법**’입니다.

- ◆ 하나님은 ‘어지러운 하나님’ 이 아니십니다.
하나님은 ‘질서의 하나님’ 이십니다.

- ◆ 부활됐으니,

이제 <자를 것>은 자르고 <버릴 것>을 버리며 자기를 만들어야

- 환란의 바람을 안 타게 되고,
- 겨울의 눈보라에 피해를 안 받게 됩니다.
- 또한 신앙 안에서 흑암과 자기 적들에게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.

- ◆ <월명동 소나무>를 손질하니,
이제 눈이 3미터가 와도, 태풍이 200해일로 불어도 안 쓰러집니다.

이와 같이 **자를 것을 자르고, 버릴 것을 버리며 자기를 만든 사람들은**
아무리 환란이 와도, 시대의 태풍이 불어도 썩썩합니다.

- ◆ 부지런히 자기를 만들고 실천하고 개발하며 새롭게 행해야 됩니다.

<자기 건강>도 무섭게 살피고,

<자기 경제>도 무섭게 살피고,

<자기 신앙>도 살피며 ‘하나님의 뜻’을 실천해야 됩니다.

- ◆ 모르면, 죽습니다.
모르고 행하면, 해가 됩니다.

<아는 것>이 ‘신이 되는 것’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요즘 월명동에 와 보면, 달라진 것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.
이는 <여러분들이 보는 눈>과 <주가 보는 눈>이 다르기 때문에,
주가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.

<주가 지나가는 발걸음>에 의해 무엇이 달라졌는지,
사진으로 보겠습니다.

* (정자/원두막) <치타광장 2개>, <논골 위쪽 1개>

원두막 사진 총 3장과

사람들이 가득 서 있는 사진을 보여 준다.

◆ 달라진 것이 많지요?

이는 주가 <하나님이 지시하신 것>을 즉시즉시 행했기 때문입니다.

사진으로 보여 준 곳은 ‘조은 목사가 전도된 치타솔 주변’입니다.

이곳이 <치타광장>이 되었습니다.

<2000명>이 모일 수 있는 ‘광장’ 이 되었습니다.

이곳은 ‘사람들이 모여서 각종 사연을 이야기하며
주와 먹고 마시는 광장’ 으로 쓸 것입니다.

- ◆ 모두 이때 <하나님이 행하시는 일>을 깨닫고
부활된 자들의 삶을 기쁨으로 살기 바랍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직접 주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 봐야 합니다.

주는 늘 말씀합니다.

“<노래>든지, <월명동>이든지 ‘손을 델 것’ 이 많다.

이제는 마지막으로 ‘주의 손’ 이 가서,

모두 코치 받고 행해야 된다.”

- ◆ <주의 코치를 받고 하는 것>과 <코치를 받지 않고 하는 것>은,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

보고, 듣고, 증거하기입니다.

- ◆ 주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.

→ “너희는 모른다. 그 마음도, 실력도 모른다.” 함입니다.

- ◆ <따르는 자들>은 10년 동안 봤어도 못 했는데, <주>는 일순간 알고 해 버립니다.

<주가 지나간 자리>는 표가 확확 납니다!

<새로운 것>이 일어납니다!

<행하시면 모두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주의 실력>입니다!

- ◆ <따르는 자들>은 수백 번, 수천 번을 지나다녔어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는데,

<주>는 한 번만 지나가도 무엇을 해 놓거나,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알고 바로 실천합니다.

- ◆ 아무리 자기 자신이라도, 자기 것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.

고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답을 받고 행해야 됩니다.

- ◆ 주는 말씀합니다.

“주께 배워라. 그리하면 쉽게 하도록 가르쳐 주마.”

◆ 주께 배우고, 부지런히 할 일을 해야

신앙도, 부활된 몸도 굳어지지 않고 날 때 날고, 길 때 기게 됩니다.

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해야 합니다.

그래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한 뜻을 이루고 기뻐 감격해하십니다.

◆ 성령과 주가 온 섭리사에 평강을 비니,

〈육〉도 〈영〉도 잘되고 형통하기 바랍니다. 아멘.